WORLD POULTRY NEWS

해외양계뉴스

미국

지난해 닭고기 생산량 최고치 기록

미농무성(USDA)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국내 소비 호조와 수출의 급신장으로 생산량이 전해에 비해 1.2%가 증가한 1,264만톤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1990년대 전후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해마다 7%씩 고속 성장을 해왔으며 1994년부터 생산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후반부터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시장상황 악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까지 수출량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1인당 소비량은 38.7kg으로 나타났으며 10년후인 2008년에는 32.3%가 증가한 51.2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닭고기가 다른 식육에 비해 저렴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鷄鳴新聞)

태국

닭싸움, 동물권리단체에 비난받아

태국에서 전통 민속놀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닭싸움이 동물권리단체에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리단체에 의하면 닭싸움은 날카로운 쇠발톱을 닭발에 끼워 상대방 닭이 숨을 거둘 때까지 잔인하게 싸움을 시키므로 가혹한 동물학대라 지적하고 또한 닭싸움은 돈 거래를 하는 투기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 단체는 전통 놀이로 승화를 시키려면 닭발에 장갑을 끼워 닭들이 가격하는 부위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국닭싸움협회장인 Apichai씨는 이에 대해 태국의 전통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 일축하고 나섰다. 이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태국에서는 제1회 국제아마추

△ 태국에서 열린 제1회 아마추어 닭싸움 대회의식 행사 장면

어 닭싸움대회가 아시아 9개국에서 300여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APM)

중국

채란업계의 3가지 특징

최근 중국의 채란산업에 대해 3가지 특징을 분석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첫째, 중국은 가장 규모가 큰 계란생산국이지만 가공분야는 아직 미약하다. 둘째, 규모화된 농장이 적으며 주로 방사하는 형태의 채란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24%에 해당하는 계란이 비교적 시설이 갖춰진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76%는 방사된 닭에서 생산된 계란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화된 농장이 방사란을 생산하는 농장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계란 생산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로 지난 1997년 난가가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헤난지방에는 29%의 생산이 증가하는 등 생산지역이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지역일수록 사료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PI)

흑해 주변국

양계 현황

흑해를 끼고 성장해온 주요한 나라들은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러시아 등이다. 이중 터키는 흑해 주변국중에 유일한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나라로 양계산업이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반면 기타 다른 지역국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1990년 초반을 기점으로 양계산업이 퇴보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는 유럽의 양계 선진국과 크게 뒤지지 않는 시설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 40% 이상의 성장(1995년 현재 닭고기 1인당 8.2kg, 계란 1인당 130개)을 보였다. 흑해 지역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불가리아(1995년 현재 닭고기 1인당 10.8kg, 계란 1인당 185개)인데 대부분이 국내 생산비 보다 30%정도 싼 터키, 네덜란드, 미국, 그리스 등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소비하고 있어 양계분야는 열악한 편이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체제에 있다 독립하면서 10년전에 비해 50%이상 양계산업이 침체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루마니아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초 자유시장체제로 전환하면서 산업발전을 기대했으나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온 공산주의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불가리아의 닭고기 소비량은 1995년 현재 10.3 kg으로 10년전 18kg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WP)